



정읍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4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 고경운 의원을 대표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결산 검사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하고 분석해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고경운 대표위원은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었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으며, 박일 의장은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한 재정 성과 분석 등으로 향후 예산 운용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림사, 정읍시 희망나눔 공유냉장고에 라면 기탁

대한불교조계종 보림사가 정읍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라면 100박스를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 물품은 공유냉장고 4개소(수성동, 내장상동, 시가동, 연지동)에 전달돼 비치됐으며, 해당 냉장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유냉장고는 일상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식료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 플랫폼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림사 종진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동동, 아구타운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화민)는 지난 17일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아구타운(대표 최순옥)에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38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받은 업체는 매월 수익금의 일정 금액을 도동동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게 되며, 이 기부금은 향후 도동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인다. 최순옥 대표는 “착한가게 홍보를 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가입하게 됐으며, 앞으로 착한가게 홍보에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청소 방역 전문업체 치움과 협약 체결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래)는 지난 16일, 청소 방역 전문업체 치움(대표 오종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일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청소 및 방역 서비스 지원(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을 위한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가구에 청소 및 방역 서비스(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를 제공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계획하며,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된 취약계층(청각 장애, 척추 질환)의 매트리스 소독과 청소를 지원했다. 오종하 대표는 “뜻깊은 사업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며, 더 큰 나눔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성면에 전해진 이웃 도시의 온정

익산시 · 익산자봉센터, 정읍시에 산불 이재민 돕기 성금 · 물품 기탁

익산시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정읍시 소성면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총 1580만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17일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정현을 익산시장, 강태순 익산시자원봉사센터장이 참석해 성금과 물품을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성금 1280만원과 생수 라면 쌀 등 300만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구성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학수 시장은 기탁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익산시와 익산시자원봉사센터에 깊이 감



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성금과 물품은 소성면 이재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며,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특히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기탁당일 구호 물품을 직접 소성면 현장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며 이재민들의 불편을 더는 데 힘을 보탤다.

이번 기탁은 이웃 도시 간 상생과 협력을 실천한 소중한 본보기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번 온정이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남원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

남원시는 17일, 남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남원시 제5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위촉식 및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1부 행사는 남원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30명 위촉, 단장과 분과장을 선출 시민참여단의 활동계획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고, 2부에서는 시민참여단의 여성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차지연 강사를 초빙하여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시민참여단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역량강화교육 진행하였다.

시민참여단은 2년의 임기 동안 △안전 △돌봄 △일자리 3



개 분과로 활동하며, 안전분과는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돌봄 및 일자리 분과는 일·가정양립지원,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및 고용인정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시는 2024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민참여단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참여단에게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모니터링을 당부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용성119지역대 증축 준공식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6일, 지역 안전의 중심축 역할을 맡고 있는 용성119지역대의 증축 준공식을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증축은 협소했던 기존 청사를 개선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발판으로 추진, 준공식에는 최경식 시장 김영태 시의회 의장, 도의회 이정린·임종명 의원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 공은태·곽정화 남원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김학경 소방발전위원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용성119지역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용성119지역대는 남원시의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키는 최전선으로, 남원시 전체 출동 건수의 30% 이상이며, 이번 증축을 통해 더욱 향상된 장비 수용능력과 작전 효율을 확보하게 됐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이번 증축은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농협 무주군지부 등,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갑석)는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 전북지역보급센터(센터장 김인순), 구천동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강선녀)과 함께 지난 4월 17일 무주군 실천면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펼쳤다.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은 ‘영농 애 환경 애’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 미세먼지 배출 감소, 폐기물 폐비닐등 불법매립에 따른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는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마련, 농협 임직원들과 농가주부 회원 등 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과 전정목 제거 및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는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대학 졸업식 개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가 17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 김제시자원봉사대학 졸업식을 개최하며 2개월간의 교육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김제시자원봉사대학은 지난 2월 20일부터 이날까지 매주 목요일, 총 9주간 운영됐으며,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전문 강의와 실천 프로젝트 기획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을 함께 배웠다.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28명의 졸업생은 이날 수료증을 받고 자원봉사 리더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졸업식은 최종 평가를 시작으로 수료증 수여, 졸업생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서로의 성장과 노력을 격려하며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덕두영농조합 · 친환경연합, 소성면에 성금 기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정읍시 소성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온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지역 단체가 6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지난 16일 덕두영농조합법인과 정읍시친환경연합이 각각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정읍시에 전달하며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탤다.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 생활 타격을 받은 주민들에게 이번 기탁은 실질적인 위로이자 회복의 동력이 되고 있다.

덕두영농조합법인은 그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다양한 기부 활동을 실천해왔다. 정읍시친환경연합에 500만원을 지속적으로 기탁하는 한편, 희망나눔 공유냉장고에 참쌀(kg) 50포를 후원하며 취약계층에 온정을 전한 바 있다. 이번 성금 역시 이러한 나눔 철학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정읍시친환경연합은 학교·공공급식 납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온 단체다. 특히 북천사무소에 라면 100박스를 기부하는 등 지역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산불 이재민 지원 역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행보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공무원들, 무주군에 성금 2195만원 기탁

김제시 공무원들이 지난 16일 무주군에 산불 피해 지역 이웃들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21,9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지난 3월 부남면에서 발생했던 산불 소식을 접한 김제시 공무원들이 모금을 통해 직접 마련한 것으로, 훈훈함을 더했다.

모금에 동참했던 공무원 1,088명을 대표해 무주군을 찾은 정성주 시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로 인해 많이 놀라고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주민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교도소, 전주완산소방서 대상 참관 실시

전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17일 전주 완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사회적으로 화재 발생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국민적 관심과 관련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화재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실시하였다.

참관에 참여한 박덕규 완산소방서장은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의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으며,

전주교도소 윤순풍 소장은 “시설과 생명 보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정시설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정행정을 확대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임실 삼계면 소망교회, 영남 산불 피해 성금 기부

삼계면 후천마을 소재의 소망교회가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삼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현금 88만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 성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를 통해 피해 지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성금을 기탁한 김복순씨는 “시골 마을 작은 교회라 신도들이 많지 않지만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저희 교인 20여 명이 모금을 참여해 주셨다”며 “이번 나눔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사회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